

1. 국내에 공인인증서가 생긴 배경과 그 위험성은?

- 1999년 2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현 KISA) 안전한 전자상거래를 위해 SEED라는 자체 암호화 기술을 개발했다. 기본적으로 온라인 거래를 하는 모든 사용자들은 전자인증서와 비밀번호를 통해서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람이 본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런데 웹사이트들이 이런 전자인증서를 인증하기 위해서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ActiveX 플러그인을 사용해야 한다.
- 한국 정부가 전자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을 법으로 의무화시키면서 한국의 모든 웹사이트와 인터넷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액티브엑스가 작동할 수 있는 유일한 브라우저는 IE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의 모든 네티즌들이 인터넷 익스플로러만 사용하게 되었고, 전자금융거래와 전자상거래 사이트만 액티브엑스를 사용하면 되지만 자연스럽게 한국의 웹 개발자들은 모든 웹사이트와 인터넷 프로그램을 IE에 최적화해서 출시하기 시작했다.
- 오히려 액티브엑스는 코드 실행에 대한 제약이 없기 때문에 바이러스나 악성 스파이웨어에 노출될 확률이 커서 실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조차 ActiveX의 사용의 자제를 권장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사용자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주로 사용하는 미국보다 한국에서 전자금융사고와 사기가 더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2.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 앱(애플리케이션) 접근성?

국가에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제공자가 장애인, 고령자 등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애플리케이션 제작 시 지켜야 할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 앱(애플리케이션) 접근성의 현 상황

모바일 같은 경우의 접근성 관련 지침은 4개의 원칙과 18개의 지침 2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여러 방면에서 대해서 지침들과 권고사항 등을 제공하여 동등하게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는 중인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애플리케이션에서 도입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 것 같다.